

호혜시장은 이미 부활하고 있다
-한발레츠와 민들레의료생협의 경험을 중심으로

김 성 훈
[민들레의료생협 이사]

호혜시장은 이미 부활하고 있다

-한발레츠와 민들레의료생협의 경험을 중심으로

김성훈¹⁾

“성(聖)스런 마음을 품은 사람이 호혜시장(reciprocity market)을 택하는 것은 결국 인간을 책망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²⁾ -노자-

I. 호혜시장으로서의 지역통화운동

지역통화운동의 하나인 레츠(Local Exchange & Trading System)는 1983년 캐나다 벤쿠버시 코목스 밸리라는 조그마한 섬마을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이 지역에 경제 불황이 닥치자 컴퓨터 프로그래머였던 마이클린튼은 6명의 회원을 모아 법정화폐가 아닌 녹색 달러를 발행하여 서로의 노동과 기술, 재화를 교환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 시스템은 전세계로 급속하게 퍼져 수천개의 레츠가 만들어졌다. 특히 호주의 경우는 국가 수상이 직접 나서 레츠를 국가 전역에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고 한다. 레츠 활동가인 패트리샤 녹스는, “만약 세계 경제가 붕괴한다면 호주는 살아남을 가능성이 가장 큰 나라일 것이다. 왜냐하면 이 나라는 번창하는 대안적 경제를 발전시켜 왔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였다. 미국 주도의 세계경제에 대항하여 IMF와 세계은행을 탈퇴한 베네수엘라의 유고 차베스 대통령은 신대중경제법을 제정하여 지역통화와 화폐가 필요없는 지역교환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체계와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특히 한국에서 미국발 금융위기를 경고하며 인터넷을 통해 신화로 추앙받던 필명 미네르바(박대성)는 2008년 9월 ‘IMF2의 마지막 생존법’ 이란 글을 통해 살인적인 고물가와 실업률, 자산가치의 폭락을 막을 유일한 해법으로 지역통화를 소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지역통화운동에 대한 관심은 역설적이게도 현재 지구화된 자본주의 화폐경제시스템의 폐해로부터 비롯된다. 지역통화운동이란 한마디로 말하자면 돈으로부터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돈을 발행하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구화된 자본주의 화폐경제 시스템의 폐해를 요약하자면 다음의 세가지로 정리할

1) 민들레의료생협 조직지원부장, 한발레츠 대외협력실장, 한국주민운동정보교육원 트레이너

2) “성인집좌계이불책어인(聖人執左契而不責於人)”, 시장으로써 좌계(左契)의 뜻은 계(契), 즉 호혜씨클(reciprocity circle)을 보좌하는 시장이란 뜻이며, 반면 교환시장을 노자(老子)는 우철(右徹)이라고 했는데, 그 뜻은 ‘세금을 걷는 것을 돕기 위해서 만든 시장’이란 뜻. 김영래의 “마-차례(祭天)(2) : 부채 청산(清算)과 신시(神市)”에서 인용

수 있다. 첫째 사익추구집단에 의한 화폐발행권의 독점, 둘째 이자 등으로 인한 부의 소수 집중과 양극화, 셋째 화폐 부족으로 인한 대립과 경쟁관계의 심화이다.

현대를 살아가는 양심있는 사람들의 공통된 화두는, ‘지구화된 자본주의 화폐경제 시스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맑스-레닌에 의해 주창된 민중봉기에 의한 사회주의 건설은 자본주의 경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력의 성격을 먼저 바꾸는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의 경향은 경제 구조 자체를 민주화하고 사회화하는 실천과 경험없이 정치권력을 바꾸기 어려울뿐더러 우연히 그러한 상황이 도래한다하더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혁명이라는 것에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경제를 민주화하고 사회화하는 전략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협동조합, 연대금융, 지역통화이다. 협동조합은 사적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적 소유와 민주적 의사결정을 토대로 공공의 가치를 우선하는 생산과 소비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연대금융은 이윤논리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초국적 금융자본에 대한 대안으로 부의 집중과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공동체 자본을 형성하여 자립적 지역경제를 구축하고 소외계층에게 자활과 재활의 기회를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경제구조를 만든다. 마지막으로 지역통화는 시민이 직접 화폐발행을 함으로써 경쟁과 약탈의 교환이 아닌 우애와 연대의 인간관계를 통해 호혜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다. 이는 칼 폴라니의 논리를 빌어 말하자면, '경제에 파묻힌 사회'에서 '경제를 사회에 재매몰시키는 운동'이기도 하다. 또한 역사적으로 경제에 존재해왔던 ‘호혜-재분배-교환’의 기능중에서 호혜와 재분배의 기능을 되살려놓음을 통해 사회와 자연을 지키려는 전략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일본의 경제학자 가라타니 고진의 NAM(New Association Movement)이 있다. 가라타니 고진은 새로운 관계운동으로서 생산자/소비자 협동조합운동, 자본재 생산품을 사지 않는 보이콧운동, 레츠(LETS)를 제안한다.

이러한 사회적 경제운동은 원시반본을 통해 훨씬 풍부한 대안을 발견할 수 있다. 신시와 화백의 재야 연구자인 좌계 김영래씨의 연구를 인용하며 김지하는 신시를 이를 호혜와 교환, 획기적 재분배 시스템으로 소개한다. 김영래씨는 노자의 글을 인용하여 “교환시장은 결국 사회적 축적이 없이 개인적 축적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호혜시장은 사회적 축적이 있다. (사철무덕(司徹無德) 사계유덕(司契有德))” 고 말한다. 그는 빚에 쫓돌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이유는 그들이 스스로 돈을 만들어가며 빚을 갚을 수 있는 호혜시장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거래는 단지 교환이 아니며 서로 살리는 호혜의 기능과 파산한 사람들을 다시 살리는 재분배의 기능을 하는 신시와 같은 호혜시장을 되살려야 사람들이 서로를 책망하지 않고 서로를 보살피고 배려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

II. 한국에서의 지역통화운동

한국에서의 레츠는 1996년 녹색평론에서 처음 소개된 이후,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대전에서는 1999년 당시 대전의제21추진협의회 사무처장이었던 박용남씨에 의해 시작되었다. 한발레츠는 현재 한국의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며 지역통화운동의 가능성을 보여준 단체로 널리 알려져 있다. 한발레츠는 외부에 알려진 것처럼 성공한 사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망하지 않고 조금씩 성장하는 단체라고는 말할 수 있다. 한발레츠가 만들어 지던 1999년과 2000년 즈음 20여개의 지역통화 단체가 있었지만 그 대부분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한발레츠와 더불어 지역통화운동의 명맥을 유지하며 꾸준히 성장하는 단체로는 과천품앗이가 있다.

한발레츠 역시 1997년 외환위기로부터 교훈을 얻어 시작하였듯이 2008년 말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에 지역통화에 대한 관심은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한국사회에 일고 있는 사회적 경제운동의 대유행과 맞물려 전국의 지역통화단체는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전국의 지역통화단체는 30여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아직 전해 듣지 못한 곳 까지 포함하면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에 추세를 감안 한다면 2~3년 안에 100개 이상의 지역통화 공동체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90년대 말 시도되었던 지역통화운동단체 보다 현재 시도하는 공동체들은 훨씬 더 지역 사회와 생활에 밀착된 활동을 전개해온 경험이 있어 예전처럼 쉽게 무너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발레츠를 뛰어넘는 모델이 여러 곳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III. 한발레츠에서 민들레의료생협까지

한발레츠 초기에는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다른 지역통화운동단체와 마찬가지로 고전을 면치 못했다. 사람들은 좋은 시스템이라고 말하였지만 막상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가장 큰 이유는 ‘거래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이었다. 협력을 통해 서로 이익이 되는 상황이 아닌 더욱 불리한 상황을 선택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이른바 ‘죄수의 딜레마’에 빠지게 된 것이다. 불신을 전제로 이기적으로 거래해야 이익이 되는 교환시장의 논리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호혜시장의 원리를 따르는 레츠를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았다. 2000년 한 해 동안 회원 70여명의 총 거래 건수가 287건이었다. 거래를 늘리기 위한 방향은 두가지였다. 그중의 하나는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이었으며 또 하나는 거래할 만한 것을 시스템 내부로 들이는 것이었다.

한발레츠의 경우 의사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한의사가 가입하고 얼마 후 지역공동체 운동에 뜻을 둔 레스토랑이 가입하였다. 연이어 친환경 농업을 하는 농부가 가입하면서 선순환이 시작되었다. 이들은 각자 준비해온 음식을 나누어 먹는 품앗이 만찬을 통해 더욱 가까워졌다. 얼마후 의료계의 파란을 일으킨 의약분업 논란이 시작되었는데 당시 양방의사까지 가세한 의료인들과 회원들도 연일 토론이 계속되었다. 특히 새로 가입한 내과 전문의 나준식 회원은 당시 질병검사의사로 있으면서 의사로서가 아니라 아

이 돌을 키우는 생활인으로서 레츠회원들과 관계하면서 회원들로부터 깊은 신망을 받았다. 회원들은 그의 건강상담을 지역화폐로 거래하지는 않았지만 그와 여러 생활재와 노동력을 주고 받으면서 일상적으로 건강상담을 했을 뿐만 아니라 밤늦게 갑자기 아이가 고열에 시달린다거나 본인이나 가족중 심각한 질환이 발생하였을 경우 늘 그를 찾아 상담하곤 하였다. 레츠 회원들은 믿을 수 있는 의료인들이 레츠에 존재한다는 것이 큰 자부심이 되었다. 국가의 의료제도가 부적절하다면 우리는 레츠를 통해 만들어진 공동체의 힘으로 바른 의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나준식씨와 같은 주치의 역할을 해주던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의료생협이다.

의료생협이 만들어진 이후 거래는 급속히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한발레츠는 2009년 현재 400여명이 회원이 1만 5천건 이상의 지역화폐 거래를 하고 있다. 의료생협은 현재 약 1300세대의 조합원이 6억원 정도의 자산을 운용하며, 의원, 한의원, 치과, 노인복지센터, 심리상담센터, 친환경농촌마을기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17개의 조합원 건강모듬이 있다. 의료생협의 경우, 2008년 한 해 동은 2천만 두루의 수입이 있었으며 이러한 수입은 직원의 급여와 생활재 구입, 출판물 인쇄, 조직활동비로 거의 지출하면서 새로이 건강화폐 ‘조각’을 발행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대전에서는 마을어린이 도서관을 중심으로 동단위 품앗이 공동체가 약 5곳이 새롭게 설립되었으며 최근 지역의 사회적 경제운동 단체들과 연대하여 독일의 지역화폐중의 하나인 김가우어 시스템을 접목한 호혜시장 네트워크를 준비중에 있다.

2009년 11월 일본 동경에서 열린 제 2회 아시아 연대경제포럼에서는 ‘지역통화와 의료생협’이란 주제로 사례발표를 하였는데 참여자들의 깊은 호응과 관심을 받았다.

IV. 품앗이 놀이

2008년 1월 <품앗이 놀이>를 만들어 배포하였다. 지역통화는 다양한 방식이 있지만 품앗이 놀이는 특히 시스템 설계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어떤 공동체나 쉽게 적용할 수 있어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퍼진 지역통화 시스템중의 하나인 레츠를 모형으로 하였다. 한 지역에 지역통화운동을 하고 싶은 분들이 10명 이상 모였다면 2~3시간의 공동작업(Workshop)으로 바로 이 운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그간 한발레츠를 방문하거나 지역통화운동을 하고자 하는 공동체에 수백회 방문을 하였지만 막상 시작하는 단체는 드물었다. 한발레츠는 처음부터 이론가와 전업활동가가 있었으며 대전의제21추진협의회가 산파 역할을 해주었기 때문에 시작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사례는 한발레츠와 같은 조건을 갖지 못한 공동체에게는 오히려 시작을 주저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레츠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전혀 색다른 시스템이 아니라, 전통사회속에서 품앗이나, 두레, 계 등으로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삶의 밑바탕에 면면히 흐르고 있는 보살핌과 배려, 나눔과 협동으로 작동하는 사랑의 경제를 부활하는 운동인 것이다. 그동안 다양한 공동체에서 50회 이상의

품앗이 놀이를 진행해보았다. 품앗이 놀이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웃의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었다. 나아가 탁월한 이론가가나 전업활동가 없이도 우리도 레츠를 한번 해보자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품앗이 놀이의 설계를 간단히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1. 서로 뜻과 마음을 모으고 부르기 쉬운 돈의 이름을 정한다. (마을의 상징, 특산물, 살림계의 비전 등을 담은 말)
2. 각자 요청할 것을 5가지 이상 적어 모두 발표하고 잘 경청한다.
3. 각자 제공할 것을 5가지 이상 적어 모두 발표하고 잘 경청한다.
4. 이 모두를 전지에 붙여 한 곳에 모아 품앗이 목록을 만든다.
 - 요청목록과 제공목록을 한데 묶어 정해진 장소에 게시하거나 간단한 문서를 만든다.
 - 인터넷 홈페이지나 카페를 이용할 수 있어도 좋다.
 - 이 일을 진행할 거래목록 관리자를 정한다.
5. 요청목록과 제공목록을 대조하여 서로 나눌 수 있는 것을 찾는다.
6. 찾아낸 것 중 하나를 선정하여 제공자와 요청자를 초대하여 역할극을 한다.
 - 연락방법, 인사, 나눌 내용 확인, 금액 정하고 합의하기 등을 상황을 주고 직접 역할에 따라 행동해 본다.
7. 거래 후 계정정리를 위하여 계정관리자를 정한다. 거래목록 관리자와 검임할 수 있다.
8. 계정관리자가 왜,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기록할 것인지를 계원 모두가 토론하고 합의한다.
9. 계정관리자와 약속된 거래 보고자(주로는 제공자)가 다시 역할극을 한다. 거래 일시, 요청자, 제공자, 거래품목, 거래금액은 필수 기록 항목이 된다.

V. 나오며

작년에는 그동안 의료생협 운동의 경험을 토대로 협동조합 놀이를 만들었다. 품앗이 놀이가 개인간의 거래라면 협동조합놀이는 일종의 두레로서 호혜시장의 복원을 보다 손쉽고도 즐겁게 시작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한국의 모든 마을에서, 나아가 전세계의 모든 마을에서 레츠와 같은 품앗이 공동체, 삶의 전반에 제기되는 문제를 협동조합 운영원리로 풀어나가는 두레 공동체가 만들어진다면 그것이 진정한 혁명일 것이다. 누가 뭐라든 우리는 그 길을 갈 것이다.